

NEWS & REVIEW

NEWS & REVIEW 뉴스 & 리뷰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제2차 이사회

본 회는 2월 22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5층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회원 113개사 중 74개사가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협회 장일훈 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종술 상무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7년 결산(안) 보고, 지성배 감사의 2017년 결산감사 보고, 김형수 전무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이후 임원선임(안)을 의결하고 잠시 정례 후 이사회에서 신규 부회장 호선이 이어졌다. 본회는 2018년에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회원사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규선임 임원

구분		성명	회사명
1	부회장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2	부회장	김지원	아주아이비투자
3	이사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4	이사	심동욱	포스코기술투자
5	이사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6	이사	홍충희	지애펙벤처투자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2월 23일(금) 역삼동 팁스타운(해성빌딩 팁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공청회에 창투자, 유한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신규 제정법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과장이 약 30분간 제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30분간 8명의 패널이 정책토론을 이어 나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23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월 스터디데이

2월 21일(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무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3월 스터디데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스터디데이의 주제는 최근 VC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증권

애널리스트인 김열매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블록체인 개념과 이슈화 과정 및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신규등록 창투사 및 신규회원사 방문

본회는 신규등록 창투사 및 신규회원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2월 14일과 20일에 걸쳐 창투사로 신규등록한 쿼텀벤처스코리아와 새롭게 회원사로 가입한 인라이트벤처스를 방문하였다. 업계 및 협회에 바라는 점 등 관련 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방문서비스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 VC대표단 이스라엘 방문 사전 세미나

본회는 2월 6일(화)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방문 사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벤처캐피탈 관계자 30여 명 대상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 샤이 파일러 참사관, Korea Israel Innovation Center 오하드 토포 상임고문이 발표를 진행하여, 3월 추진예정인 한국 VC 대표단 이스라엘 현지 방문 전 이스라엘의 벤처창업 및 투자 생태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 VC대

표단은 3월 10일(토)부터 5박 7일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현지를 방문하고 이스라엘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과 투자환경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등 산업 시찰을 통해 벤처 강국 모범사례를 체험하고, ICT·바이오 등 업종의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 및 이스라엘 VC와의 B2B 상담으로 양국 간 벤처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8년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벤처캐피탈 업무 시 알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이 올해 신설되었다. 커리큘럼은 회사제도, 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 쟁점, 회사법 상의 주주(투자자)와 회사의 소송 유형, 회생절차 등을

포함하며,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 Case를 통해 실무 내용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투자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학구열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 되었으며, 다음 교육은 201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일자: 2018년 2월 21일(수) ~ 2월 27일(화) (5일 출석) | •장소: 서초동 월헌빌딩 B1 회합실1 /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내 용	강 사
[제1강] 회사 제도 일반 ① 회사의 종류 가.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상법상의 조직 다. 펀드의 법적 성격 및 구조 ②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론 가. 회사 제도 일반: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리 나. 설립: 설립절차 개관, 정관의 작성,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설립등기, 가장 납입, 설립에 관한 책임 및 설립 무효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라. 타인 명의 주식인수의 쟁점 마. 주권: 주권 미발행 법률관계,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 주권의 불소지제도, 주권의 실효, 주식의 전자등록 바. 주주명부: 기재사항,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전자 주주명부, 실질 주주명부 ③ 주주의 지위 변경: 주주권의 변동 가.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방법,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주권의 선의취득 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다.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라.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권리주 양도제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자기주식 취득 제한, 상호주 소유의 규제, 특별법상 주식 거래 제한 마. 주식의 담보·대차 바.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④ 자본시장 가. 시장의 구분 및 특례규정 나.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다. 경영권 분쟁	
[제2강]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登記 실무 사례 ①登記의 종류와 효력 ② 회사법상의登記제도 / 투자와登記 가. 법인登記부 등본 보는 방법 나.登記부 등본이 주는 정보와 LDD 방법 ③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登記실무 사례 선례 가. RCPS, CB, BW, STOCK OPTION, 임원, 자본금, 대표권 제한, 주식양도 제한 등의登記사항 보는 방법 및 법률적 의미 나.登記사례(법무사)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한길합동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제5강] 주식회사와 기관 ①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에 관한 제도 일반 ② 주주총회: 주주총회 권한, 회의의 소집, 의사 진행, 결의,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 주총회 ③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소규모회사, 이사의 의무,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 방지: 경업금지, 회사기회 유용의 금지, 이사 등의 자기거래, 이사의 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관계자의 책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집행 임원 ④ 감사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제3강] 회사법상의 주주(투자자)와 회사의 소송 유형 ① 회사법상 소송의 유형 ② 주주(투자자)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법적 쟁점 가. 주식에 관한 법적 분쟁 나.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법적 분쟁 다. 이사 등 임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져본 마. 투자자(소수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제6강] 주식회사와 자금조달(자본금 변동, 사채발행) ① 신주의 발행 가. 의의 및 절차 나. 효력 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라.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분쟁 ② 사채의 발행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백은성
[제4강] 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적 쟁점 ① 주식 가. 주식의 개념 나. 주식과 자본금(액면/무액면) 다. 종류주식: 개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② 주주와 주주권 및 주주명부 가. 주주의 권리 나. 주주 명등의 원칙 다. 주주의 의무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류권영		

내 용	강 사	내 용	강 사
가. 의의 및 절차 나. 특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특수사채(교환사채 외)		[제9강] 회생절차와 투자자의 조치 ① 회생절차 개관 가.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다. 회생절차 개시결과와 개시효과 라. 회생절차의 기관 마. 채무자 재산의 확보 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 등 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아. 조사위원의 조사 및 관계인집회 자. 회생계획안	
[제7강] 자본금의 감소 및 회계 ① 자본금의 감소(감자) 가. 감자의 구분 나. 감자의 방법 다. 감자의 절차 라. 감자의 효과 등 ② 회사의 회계 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나. 준비금 다. 이익배당 라. 공시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권낙현	② 회생절차와 투자자의 법적 조치 가. 절차의 단계별 투자자가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 나. 회생절차와 사전조치 다. 회생절차와 사후조치 라. 각 단계별 법적 조치의 불변기간 등 ③ 기타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특별법 관련 내용 발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민사소송법 다.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권낙현
[제8강] 합병,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이해 ① 회사의 조직개편 가. 합병 나. 회사분할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라.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 ② 회사의 해산과 청산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백은성		

2018년 제1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연수원에서는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수교육인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작년 벤처캐피탈 투자 성과와 최근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코스닥 제도 및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육은 올 해 총 3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는 2차 교육은 5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일자: 2018년 2월 28일(수) (1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및 성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 김종술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 동향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 개선	
코스닥 제도 개선 및 ISSUE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2월 벤처투자 사랑방

본회는 지난 27일 '2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이프커뮤니티 등 중소·벤처기업 9개사와 수림창업투자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단계에 따른 투자기관 배정으로 참여기업의 상담 만족도가 매우 높은 벤처캐피탈과 기업 간의 대표적 투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본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과 사업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사랑방(벤처투자마트)'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벤처투자마트)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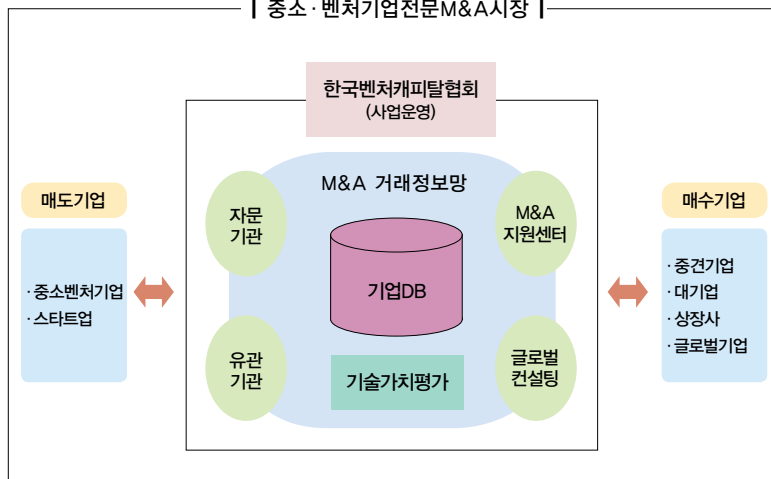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공고를 최종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난 2월 19일 공고된 『2018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은 M&A 기업진단비용 지원, M&A 거래정보망 전문 자문기관 지정·운영, M&A 거래정보망 운영 및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업진단비용 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90%까지 늘리

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상 및 한도를 확대적용 하였다. '18년 사업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M&A 거래정보망, 각 M&A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M&A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전문M&A시장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 공고 주요 내용

· 사업명: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M&A 추진 의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① 중소·벤처기업* M&A 중개 지원: 최대 2천만 원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등록된 매수·매도기업으로 전문

자문기관을 통하여 M&A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② M&A 상담·자문서비스 지원

* M&A와 관련된 세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 정보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사업공고 → M&A 중개 지원 신청*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 최종선정

* 공고 내 '붙임 1. M&A 중개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018년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1차 공고 접수 마감

최근 1차 추천기업 접수모집이 마감된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는 벤처캐피탈 및 지방청이 추천한 기업 중 글로벌시장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추천기관인 VC와 지방청을 통해 접수된 기업은 3월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

문평가위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차 모집공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본 회는 각 투자기관의 투자 관리본부 및 기획·관리본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18년 해양수산 투자연계 R&D 공고 접수 마감

본회는 해양수산분야 핵심기술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신규 R&D 지원사업인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3일 '18년도 참여기업 모집·접수가 마감되었다. 본회는 향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종합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완료한 해양수산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투자연계 기술개발)은 해양수산분야 R&D 성과확산을 목표로 벤처투자 기업 중 유망기업에 기술개발 자금(2년, 10억원 이내)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 2018~2019년도 멘토 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기업에 특허전략,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기관 신규선정 공고에 협회가 '투자

유치 전략수립 및 IR' 분야 멘토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협회는 향후 2년 동안 멘토링 신청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투자유치 전략수립, 재무계획 검토 등의 투자유치 실무 코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멘토링 기업 투자기관 매칭데이

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멘토링을 진행하여 '17년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VC 1:1 상담회를 지난 2월 23일 VR빌딩에서 AI 음성인식, PU 솔루션기업 등 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한국경제TV 파워인터뷰 The CEO 방송 출연

본 회 이용성 회장은 한국경제TV의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인 <파워인터뷰 – The CEO> 코너에 출연하였다. 지난 2월 27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용성 회장은 벤처캐피탈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 VC 업계 현황 및 투자 유망업종에 대한 전망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VC 업계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벌이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소개하였다.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2월 8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IT여성기업인협회는 혁신벤처단체 협의회에 함께 소속된 유관기관으로 회장직은 제6대 장혜원 회장에서 제7대 전현경 회장에 이임되었다. 이용성 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전달하였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1차 이사회 참석

2월 27일(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1차 이사회에 이용성 회장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VR빌딩에서 진행된 이사회의는 보고안건으로는 2017년 제4차 이사회 결과, 2017년 사업 추진실적, 2017년 감사 결과 등이 있었으며, 이어 의결안건으로 2018년 사업계획(안), 2018년 예산(안), 2017년 결산(안), 제규정 개정(안)이 이어졌다.

비케이인베스트먼트

비케이인베스트먼트가 탱크테크에 대한 후속 투자에 나섰다. 올 초 기존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독자 기술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또다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21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비케이인베스트먼트는 최근 'BK6호 조선업구조개선 투자조합'과 'BK5호 동남권 투자조합'을 통해 탱크테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했다. 인수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액면가에 15배의 멀티플을 적용했다.

서울투자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가 맹동준 비상임 감사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수장을 맡았던 강무경 대표이사는 2월을 끝으로 서울투자파트너스를 떠난다. 맹동준 감사는 현재 한국정보통신 상임 감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에셋증권, 장기신용은행 등을 거쳐 드림벤처캐피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투자파트너스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 중이다.

시너지벤처투자

시너지벤처투자가 창업투자사 자격을 포기했다. 활동 기반인 부산에서 운용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그룹 내 또 다른 벤처캐피탈(시너지IB투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등록 말소는 시너지벤처투자가 직접 라이선스 반납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가 역발상 투자로 책판을 터뜨렸다. 다른 벤처캐피탈이 모두 지분을 매각하는 시기에 카버코리아에 재투자해 제대로 성공시켰다. 1년 6개월 만에 내부수익률(IRR) 245%, 투자이익률(ROI) 423%를 각각 달성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의 투자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심사역과 투자심의위원회 의 판단이 주효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가 6년 전 60억 원을 투자한 동구바이오제약을 통해 큰 투자차익을 거두고 있다. 기업공개(IPO) 이전 중간회수한 금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300억 원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1970년 동구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피부비노기와 전문 의약품 업체다. 이후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며 펩타이드 업체 노바셀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했다. 벤처캐피탈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도 이때다. 줄기세포 추출기 기인 '스마트엑스' 등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료기기 및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에이티넘 성장투자조합 2018'의 2차 클로징을 완료했다. 산재보험기금, 동부화재, 엔씨소프트 등이 추가 LP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3,207억 원으로 1차 클로징을 마친 이후 약 한 달 만에 293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	주소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요즈마그룹코리아	이원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삼평동, 스타트업캠퍼스)
NH 투자증권	김원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빌딩 10층

사무실 이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 1길 10, 3층	02-3453-3190	02-3453-3189

폴리우레탄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 '(주)디유티코리아'

(주)디유티코리아는 1992년 창립 이래 PU(폴리우레탄, Polyurethane) 제품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믹싱효율을 자랑하는 고압 믹싱헤드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정량펌프를 자체 개발하여 세계 4대 메이커로 성장한 기업이다. 고압 믹싱헤드, 정량펌프, 발포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폴리우레탄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폴리우레탄 발포 성형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성장 기반 구축

설립 초기에는 대기업과 기계연구원, 포항방사선가속기연구소, 산업과학연구원 등 고급산업기관의 외주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7년, 짧은 교체주기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발포기용 믹싱헤드(Mixing head)를 자체개발하여 PU 시장에 진입하였다. 특히 해외업체를 뛰어넘는 '이중경사각' 기술을 채택한 믹싱헤드(Dual-Tilted Mixing Head)를 2001년에 세계 최초 독자개발에 성공하며 믹싱헤드의 핵심인 믹싱 효율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6년부터 정밀기계 가공분야에서 40년 이상을 엔지니어로 보낸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연구·기술직으로 구성하며 다년간

20건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결과 특허등록 24건, 디자인 등록 1건, 상표등록 5건, 특허출원 15건으로 지식재산을 획득하였다. 기술확보에 대한 노력으로 프리미엄급 DTRC (Double Tilted Rear Chamber) 믹싱헤드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각도 분사방식의 고압믹싱헤드와 고압 고정도 정량펌프는 폴리우레탄 발포설비의 핵심부품으로써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인정받아 국내외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품질 안정화에 크게 기여중이다.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로 고성장 가젤 기업으로 선정되어 성장 가능성을 공인받았으며, 2017년 매출 100억을 달성하였다.

주요 생산제품 및 응용산업분야

주요 생산 제품			응용 산업분야	
주요생산품 : 고압믹싱헤드, 미터링펌프, 우레탄발포기 등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다양한 폴리우레탄 제품 제조 기반 기술				
고압믹싱헤드		▶		
미터링펌프		▶		
PU 발포설비		▶		
PU 발포기		▶		



DTRC 믹싱헤드



DMP 정량펌프



이중 각도 분사 방식의 PU 고압 믹싱헤드

세계 4대 믹싱헤드 전문기업

갈수록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PU 소재 발포기 믹싱헤드 시장에서 디유티코리아는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이(KraussMaffei), 헤네케(Hennecke), 이탈리아의 캐논(Cannon)과 함께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4대 업체이다. 이 중 발포기 믹싱헤드와 PU 재료를 공급해주는 정량펌프(metering pump) 모두를 제조하는 기업은 전세계에서 크라우스마파이와 디유티코리아 뿐으로, 정압 및 정량을 제어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정량펌프 뿐만 아니라 발포기 및 주변설비와 발포기를 둘러싼 관련 공정라인 전체를 제작·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

폴리우레탄이 가장 널리 쓰이는 분야는 자동차(대쉬보드, 천장, 콘솔, 바닥, 시트 내부 등), 냉장고(단열 패널), 건설(샌드위치 패

널) 등이며, 그 외에도 침대 매트리스, 항공, 선박(LNG선박)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디유티코리아는 이 분야들의 국내외 우수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지의 냉장고 제조사(도시바, 샤프, GE, 월풀, 삼성, 엘지 등), 자동차기업(기아, 현대, 도요타, 미쯔비시, BMW, GM, Ford, 아우디 등), 국내 매트리스 제조사 등 유수의 기업에 공정장비와 설비 및 부품 등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로 성장하는 디유티코리아

디유티코리아는 2012년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역량을 구축하여 기업이미지와 브랜드를 강화해 왔다. 2016년부터 Pre-월드챔프 사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WORLD CLASS 300에 이르는 단계의 성장계획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진출이라는 중장기 목

디유티코리아의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 유망기업 탐방

NEWS & REVIEW



CFRP HP-RTM 시스템



CFRP 본넷 개발 제품

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고객은 인도 최고의 소비재 및 유지화학 복합기업(건설, 가전, 우주항공)인 Godrej그룹, 일본의 자동차/전자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PEC그룹과 핵심부품 공급과 동반자적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발포제 및 건물 단열재 등을 생산하는 RECTICEL Insulation그룹에는 발포 시스템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두바이, 유럽 등 해외 기업의 납품실적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다.

세계 폴리우레탄 폼 시장 성장은 2022년 60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침구가구 시장의 성장,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물 단열용 수요확대, 경량화 등으로 인한 복합소재의 시장 확대로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매년 해외 전시회에 3회 이상 참가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CFRP 및 체압 분산형 매트리스 등 차세대 신규사업을 통한 성장

지금까지 디유티코리아의 주력분야가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수지가공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믹싱헤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44조원 규모의 체압분산 폼매트리스 시장과, 국내 최초 복합소재 HP-RTM 생산장비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탄소섬유복합소재(CFRP) RTM설비산업에 진출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CFRP 배터리 케이스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시스템이 갖춰질 경우 퀀텀점프(quantum jump)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유티코리아(DUT Korea)의 DUT는 “Double Use Technology”는 군용과 민간용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가격, 품질, 기술 모두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되, 특히 제품의 핵심가치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철학이 담긴 사명이다.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디유티코리아의 미래가 기대된다.

•연락처: (주)디유티코리아는 협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디유티코리아 한범정 부장

(070-4903-7231, bjhan@dut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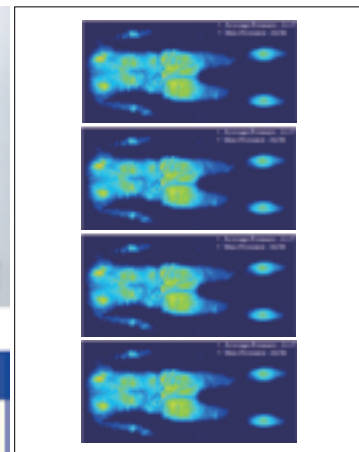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팀

(02-2156-2134~5, rnd@kvca.or.kr)

체압 분산형 매트리스



체압 측정



I S S U E 이 슈



VC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이 산업이 VC에 미칠 영향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애널리스트)

최근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투자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며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열기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블록체인이 닷컴버블과 유사한 수준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기술 21개 중 하나이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GDP 10%가 블록체인 기반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과연 무엇인가? 본 고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다양한 산업과 경제 전반, 그리고 벤처캐피탈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Web)은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저장하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이다. 반면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방식의 완전한 공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중앙 집중 서버를 참여자 모두가 분권화된 서버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민주화이자 인터넷의 2차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1세대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익명의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백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를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등장했다. 제삼자를 배제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중앙 은행이 보증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통제, 관리 기구가 없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bitcoin.org' 웹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자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된 네트워크'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탄생하게 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불리는데 네트워크 참여자들(노드) 모두가 거래 전체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한다. 이를 구현한 두 가지 핵심기술은 암호화 기술(Cryptography)과 분산네트워크다. 비트

코인의 경우, 네트워크 안에서 일정 시간(약 10분) 동안 발생한 거래 내역들을 묶어 해시 함수로 암호화해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이를 차례로 연결한다.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는 해시 함수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보호되며 단일 중앙 서버가 아닌 참여자 각각의 서버에 분산되어 복제, 저장되므로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최초의 블록 생성 후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다. 암호화 기술을 통해 공개된 원장에서 익명으로 각자 본인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기록은 용량을 현저하게 줄여 저장된다. 비트코인은 약 1MB로 제한된 한 개의 블록에 약 2천 건의 거래를 저장할 수 있으며 약 10분마다 1개씩 신규 블록이 생성된다. 지난 10년간 거래기록 전체를 보관한 분산원장의 용량은 현재 약 200GB로 일반 PC에도 보관이 가능하며 이는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널리 퍼져있는 공개된 분산원장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분산원장이라는 결제네트워크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2015년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의 응용 가능성을 대폭 확장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에 새로운 응용 플랫폼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명한다.

이더리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스스로를 화폐나 결제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대신 '블록체인 앱 플랫폼(Blockchain



App Platform)’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폐에 대항하기보다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가상기계(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구현 플랫폼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으로서 그 안에서 이더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각각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카페나 블로그 같은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스마트 계약이란 조건문(if 조건문, For, While 등의 반복문)을 코딩해 넣으면 지정된 조건이 만족됐을 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 계약을 코딩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 한다. 탈중앙화, 분권화를 지향하는 비트코인의 개념이 이더리움 상의 어플리케이션에도 들어있다.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으로서 10년 전 등장한 비트코인보다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저장용량과 거래횟수 등 제약 조건이 많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더리움 플랫폼상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상상 가능한 계약 조건을 넣어 DApp을 만들 수 있다. 아직 킬러 앱이라고 할만한 성공적인 앱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를 화폐나, 상품이나의 논란을 낳았다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앙집권적 기관이나 제삼자에 의한 공중 비즈니스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인공지능보다 스마트 계약이 먼저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회계사, 법무사 등 각종 인증이나 중개·감시 업무가 스마트 계약에 의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년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편적으로 상용화된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다. 분권화, 탈중앙화라는 기본 속성상 대기업보다 오히려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는 단계다. 수많은 스타트업의 시도 중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은 도전이 파괴적 혁신이 되어 어느 산업이나 기업을 위협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다 많은 도전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대치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상당 비중이 국제 송금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빔(VEEM)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 송금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고 송금 절차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했다. 처리 과정은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중남미나 아프리카 약소 국가로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수수료는 1%대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구글벤처스, SBI Investment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수

많은 송금 관련 스타트업 중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구글의 투자가 눈에 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글과 아마존이 송금, 결제 등 금융업에 뛰어든 날이 머지않았으며 테크 기업이 모든 산업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실물 경제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무형자산, 특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음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무료로 소비되고 있으며 작곡가나 음악가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 지 오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실험적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다양한 종류의 유형, 무형자산을 작게 쪼개어 소유하거나 공유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 시간마다 소유권의 변화를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측정이 어렵고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웠던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의 개념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블록체인은 스타트업 창업과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초기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특정 VC로부터 엔젤 투자를 받는 것보다 크라우드펀딩 등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투자를 유도한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개발 계획만으로도 세계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들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O는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다. CoinSchedule에 따르면 2017년 ICO 건수는 211건(38억 8천만 달러)으로 2016년 45건(95백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 모집 규모는 벤처캐피탈 펀딩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ICO에 대한 절차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자금을 모집하는 만큼 사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직 정식으로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오 해킹 사태 이후 ICO를 IPO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ICO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이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어 ICO 시장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ICO가 성장할수록 아이디어만 훌륭하다면 대규모 자본금이나 기관투자자의 도움 없이도 창업을 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ICO가 확산될수록 벤처캐피탈 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분위기만 보자면 이미 ICO는 벤처캐피탈 업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ICO가 벤처캐피탈 업계 전반을 위협하기보다 우수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뿐이라면 ICO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지만 스타트업들이 뛰어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찾아가는 이유가 자금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중요한 역할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 코인 투자자들이 해주기 어려운 서비스다.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경험과 노하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딜로이트는 현재 GitHub에 올라와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86천여 개 중 약 8% 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다. 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조직이다.

2017년 유럽 VC시장 결산, 투자·회수·펀드 부문 Top 5

금융 전문 미디어플랫폼인 피치북(PitchBook)은 '2017 연간 유럽 VC 보고서'의 출간을 앞두고, 작년 유럽의 VC 업계를 놀라게 한 투자, 회수, 펀드 부문별 5개의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 발표했다. 한편 2017년 한해는 유럽 내 VC 투자 규모가 역대 기록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투자 건수나 금액적인 면을 떠나서, 유럽 대륙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스타트업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 결과를 눈여겨볼 만 하다.

| 투 자 |

1

임프로버블(Improbable), \$5억

영국의 가상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임프로버블은 지난해 5월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통해 5억2백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영국의 비상장 기업이 유치한 투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2

딜리버루(Deliveroo), \$4.8억

영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알려진 음식 배달 업체인 딜리버루는 자산운용사 티로프라이스와 피델리티로부터 기업가치로 20억 달러를 평가 받고 시리즈 F 투자를 받았다. 딜리버루는 지난해 9월에는 1차로 3억8천만 달러를 받고 이어 11월에는 1억 달러 투자금을 추가로 받아 총 4억8천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3

오토1그룹(Auto1Group), \$4.4억

지난해 5월, 독일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체인 오토1그룹은 타겟글로벌, 프린스빌글로벌, 베일리기포드 등과 같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3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으로 약 4억4천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인 올 초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5억6천만 달러를 다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4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2.8억

유럽의 유니콘 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트랜스퍼와이즈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이 기업은 올드 뮤추얼글로벌인베스터와 IVP로부터 시리즈 E 투자로 2억8천만 달러를 받았다. 밸류에이션으로 16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은 트랜스퍼와이즈는 최근 국경없는 계좌 서비스를 런칭하고 고객들이 계좌에 예금된 돈을 약 30가지의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

오크노스(Oaknorth), \$2.1억

오크노스는 작년 10월 13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 받고 클러몬트그룹, 토스카펀드, 콜트레인 3개 투자사로부터 약 2억1천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오크노스는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오크노스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패스트푸드 체인기업인 레온 등이 있다.

| 회 수 |

1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12.3억 IPO

독일판 '배달의 민족'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6월 성공적인 IPO로 12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독일 유명 VC 로켓 인터넷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는 IPO를 통해 순수익으로만 5억7천만 달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오게다(Ogeda), \$9.8억 M&A

일본의 제2위 제약회사 아스텔라스는 지난해 5월 벨기에의 제약회사 오게다를 인수함으로써 오게다의 기존 주주였던 카프리콘벤처파트너스, 현자파트너스 등의 VC들은 약 9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3 CMC바이오로직스, \$5.9억 M&A

덴마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업체인 CMC바이오로직스는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에 인수됐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AGC바이오로직스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생명과학 사업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VC 등 투자자들은 5억9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4 로비오(Rovio), \$5.9억 IPO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앵그리버드'의 제작사인 핀란드 기업 로비오는 지난 9월 IPO를 통해 5억9천만 달러를 조달해 기존 투자자인 엑셀, 아토미코 등은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한편 로비오는 자사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라이선싱 사업의 절반 이상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리곤텍(Rigontec), \$5.7억 M&A

독일의 면역 항암제 개발사인 리곤텍은 작년 10월 다국적 제약사 머크에 인수합병됐다. 베링거인겔하임벤처펀드, 포비온캐피탈파트너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리곤텍의 이번 인수는 5억 달러에 이르며, 조항에 따라 머크는 인수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향후 마일스톤에 따라 4억 달러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펀 드 |

1 로켓 인터넷 캐피탈 파트너스 SCS (Rocket Internet Capital Partners SCS), \$10억

독일의 거대 벤처투자사 로켓인터넷은 지난해 유럽 내 인터넷 전문 펀드로는 가장 큰 규모인 10억 달러짜리 펀드를 조성 완료했다. 해당 펀드는 전자상거래, 금융기술, 소프트웨어, 여행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 아토미코 IV(Atomico IV), \$7.7억

아토미코는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 니콜라스 젠스트롬이 설립한 VC 회사로 지난 2월 7억7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시리즈 A 이상 스테이지의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토미코의 투자 포트폴리오로는 전기로 구동되는 에어 택시 업체 릴리움, 스웨덴의 후불결제 서비스 개발사 클라르나 등이 있다.

3 실크벤처스펀드 (SILK Ventures Fund), \$5억

중국 정부가 투자한 실크벤처스펀드는 미국과 유럽 내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부터 최고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파텍 인터내셔널 벤처스 VII (Partech International Ventures VII), \$4.9억

파텍 인터내셔널 벤처스의 펀드는 시리즈 A, 시리즈 B 단계의 하드캡 투자 조건으로 지난 7월 조성 완료됐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텍은 온라인 시계 스토어인 크로넥스트, 구직 플랫폼 인 파파, 세탁물 배송서비스인 린스 등에 투자한 바 있다.

5 발더톤 캐피탈 펀드 VI (Balderton Capital Fund VI), \$3.8억

런던 소재 VC인 발더톤 캐피탈은 작년 11월 약 3.8억 달러로 플래그십 펀드를 조성 완료했다. 앞서 살펴본 다른 VC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발더톤 역시 테크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리즈 A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vs 특수결의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1 주주총회의 결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1. 보통결의 vs 특별결의 vs 특수결의(전 주주의 동의)

가. 보통결의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결의 요건 강화 가능 vs 결의 요건 완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다수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ex) 정관변경(상법 제434조), 주식의 분할(329조의2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제374조 제1항 제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제374조 제1항 제3호), 사후설립(제375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

항, 제415조), 액면 미달의 신주발행(제417조 제1항), 자본금의 감소(제438조 제1항), 회사해산(제518조), 회사계속(제519조), 합병계약서의 승인(제522조 제3항), 분할·분할합병(제530조의3 제2항),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의 선임(제175조)

-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완화하지 못함

다. 특수결의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전 주주의 동의
- ex) 이사 또는 집행 임원·감사·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제400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제604조 제1항)
- ※ 보통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은 결의 성립요건으로 기능하게 됨

주주총회; 서면투표 vs 서면결의

Q2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서면투표와 서면결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서면투표 vs 서면결의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개최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반면에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갈음하는 것
- 서면투표와 서면결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 행사

Q3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 제삼자가 특정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상법 제368조 제2항)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위임장을 의장 또는 회의진행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출석한 것이 아니고 해당 주식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해서는 안 됨(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117469 판결)
- 총회별로 위임 vs 포괄적 대리권 위임 가능 ;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견해
- 주주는 결의가 있기 전에 위임을 철회 가능

2.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

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 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상법 제36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1]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주주는 갑과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을, 병의 3인뿐 이었고, 을·병은 갑이 그 소유주식 일부를 정과 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이 갑의 단순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갑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미리 의결권을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고 그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변호사가 지참한 정·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본이라 하더라도 갑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그 변호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MARKET TREND

시장 동향

.....

MARKET TREND

1월 신규결성조합 주요 현황

한국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7년 11월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되어 2,47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 운용인력은 대부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해외기업 및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요 투자 분야이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가 29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를 결성했으며, LP로는 모기업인 플랜티넷, 성남산업진흥재단 등이 참여했다. '알바트로스넥스트제너레이션펀드'는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세 번째 청년창업 펀드로 16년에 각각 112억 원, 115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 청산을 마쳤다.

에스제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관광산업육성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어 270억 원 규모의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을 결성했다. 해당 펀드는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 해당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케이비증권이 참여했다.

- 2018년 1월에 13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 펀드 2개, 지방 펀드 2개, 창업 초기 펀드 1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한국투자 Re-Up 펀드'가 2,47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의 '알바트로스넥스트제너레이션펀드',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이 각각 290억 원, 27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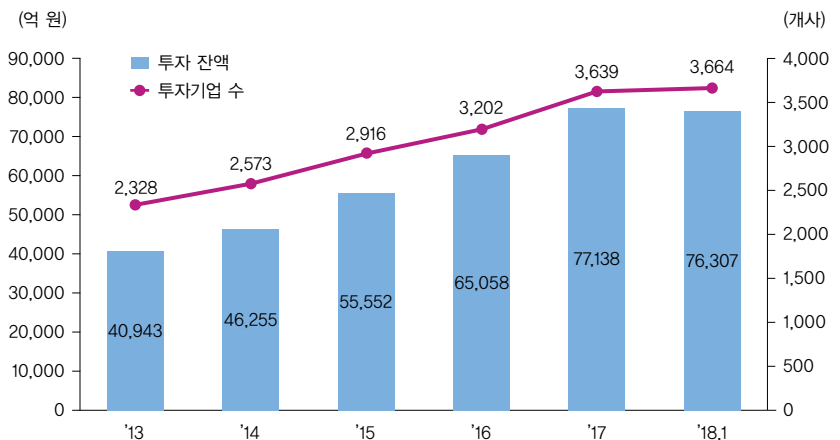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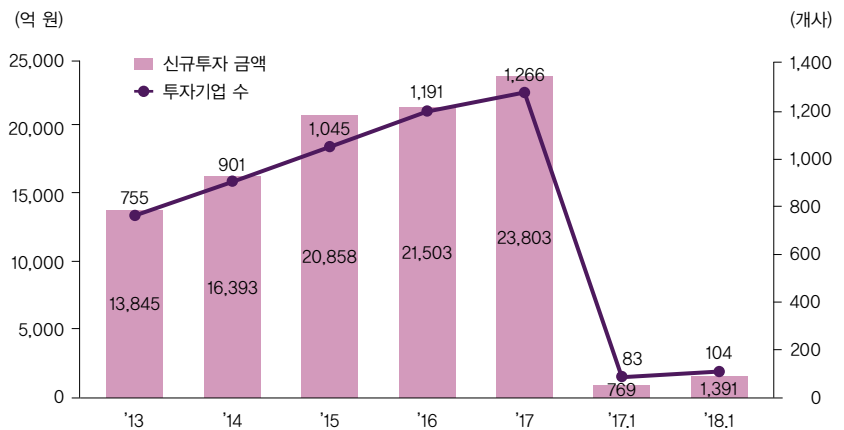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지온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지온재기지원펀드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일신창업투자	창투조합	일신뉴코리안웨이브2호투자조합	151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알바트로스넥스트제너레이션펀드	29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인라이트벤처스	창투조합	인라이트2호CD펀드	203	지방	중소/벤처일반
엠지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MGI세컨더리투자조합2호	250	일반	중소/벤처일반
케이티비네트워크	창투조합	KTBN14호벤처투자조합	53	일반	일반기타
에스비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에스비방송콘텐츠투자조합	13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창투조합	수커머스플랫폼그로스투자조합	264	일반	중소/벤처일반
심본투자파트너스	KVF	심본2호리스타펀드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KVF	케이브릿지2호동남권일자리창출투자조합	100	지방	중소/벤처일반
시너지아이비투자	KVF	시너지밸류웨이브벤처펀드	180	일반	특허
한국투자파트너스	KVF	한국투자Re-Up펀드	2,470	일반	중소/벤처일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VF	케이비-에스제이관광벤처조합	270	일반	일반기타

1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신규투자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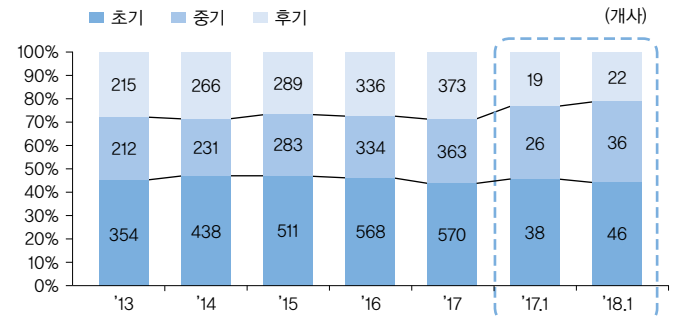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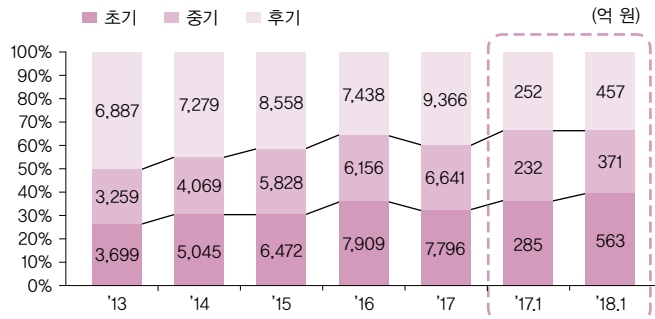
- 금년 1월 신규투자는 1,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769억 원)보다 80.9% 증가하였고, 투자 업체 수는 104개사로 전년 동기(83개사)보다 25.3% 증가하였다.
- 1월에는 톨젠이 1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피에이치파마, 단비교육, 에이비메디컬, 패스트캠퍼스, 딥바이오, 에이엠사이언스, 포인트모바일, 메드팩토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금년 1월에는 7조 6,307억 원으로 작년(7조 7,138억 원)보다 831억 원 감소했다.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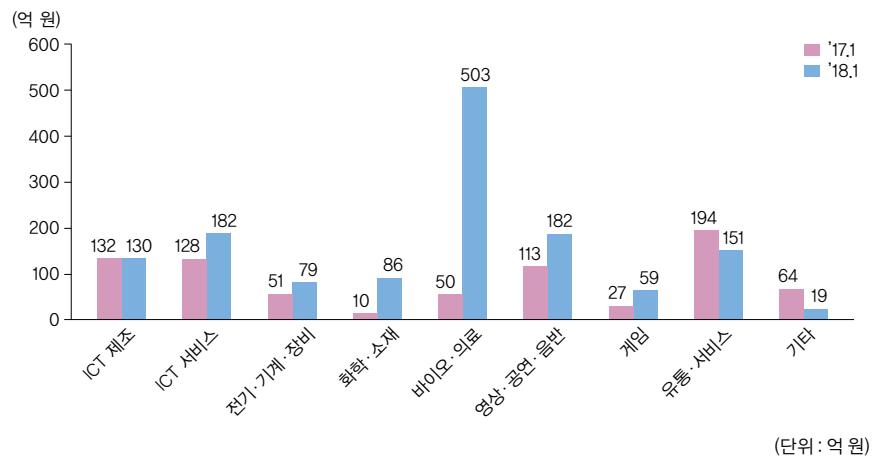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월에는 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40.5%로 가장 컸으며, 후기기업 32.8%, 중기기업 2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503억 원, ICT 서비스와 영상/공연/음반이 각각 182억 원, 유통/서비스 151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45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유통/서비스 분야는 43억 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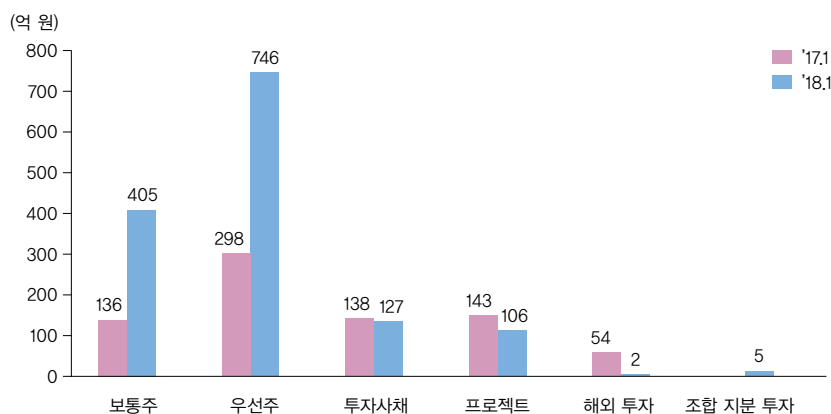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1	2018.1
ICT제조	2,955	1,951	1,463	959	1,566	132	130
ICT서비스	1,553	1,913	4,019	4,062	5,159	128	182
전기·기계·장비	2,297	1,560	1,620	2,125	2,407	51	79
화학·소재	989	827	1,486	1,502	1,270	10	86
바이오·의료	1,463	2,928	3,170	4,686	3,788	50	503
영상·공연·음반	1,963	2,790	2,706	2,678	2,874	113	182
게임	940	1,762	1,683	1,427	1,269	27	59
유통/서비스	1,092	2,046	3,043	2,494	4,187	194	151
기타	593	616	1,668	1,570	1,283	64	19
합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769	1,391

1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 투자금액이 전체투자의 53.6%인 74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는 405억 원으로 29.1%였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억 원 감소하였다.
- 우선주 투자가 전년 동기(38.8%) 대비 14.8p 증가한 53.6%로 확대되었고, 보통주 투자는 29.1%로 전년 동기(17.7%) 대비 11.4p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비중은 0.2%로 전년 동기(7.0%) 대비 6.8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1	2018.1
보통주	3,425	3,297	4,226	4,437	5,458	136	405
우선주	5,038	6,103	8,786	10,398	10,529	298	746
CB/BW	3,049	3,276	3,272	2,823	2,881	138	127
프로젝트	1,944	2,681	2,471	2,427	2,749	143	106
해외투자	389	1,036	1,951	1,147	1,908	54	2
조합지분투자	0	0	152	271	278	0	5
합 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769	1,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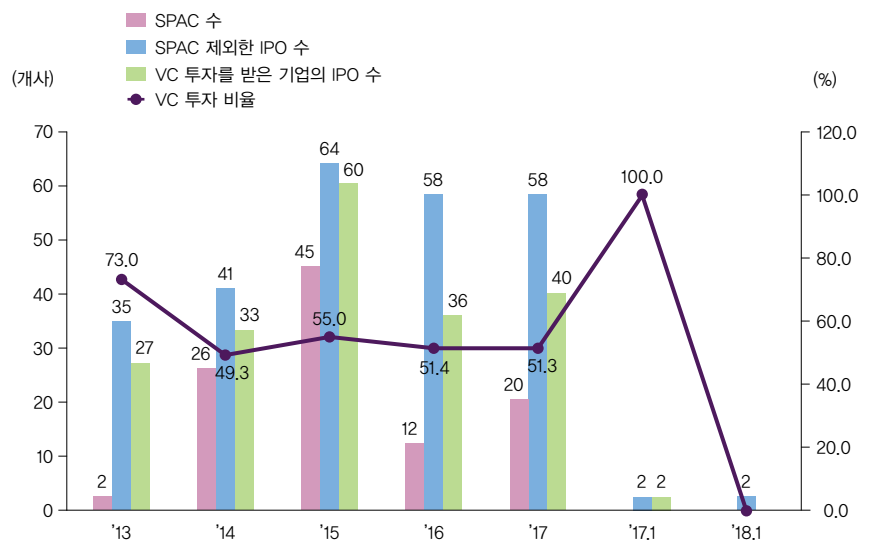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64.4%)을 비롯한 수도권(87.1%)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 광역시 9.8%, 지방 2.9% 등의 순이었다. 해외 기업에는 1개사 2억 원(0.2%)이 투자되었다.

MARKET TREND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금년 1월 회수원금은 807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35.6%로 가장 높았고, IPO가 34.2%, 프로젝트가 22.3% 순이었다.
- 특히, 1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90건의 거래를 통해 214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40억 원(6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1월에는 코스닥시장에 2개사(씨앤지하이테크, 에스지이)가 상장되었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1	2018.1
IPO	1,072	1,411	2,784	2,817	2,307	106	276
M&A	22	163	150	329	324	17	59
프로젝트	1,613	1,639	1,605	1,924	1,348	165	180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363	3,080	3,724	3,853	159	214
	채권	1,025	1,311	1,614	1,045	12	73
기타	736	217	342	476	389	25	5
합 계	6,831	7,821	10,219	10,315	9,251	484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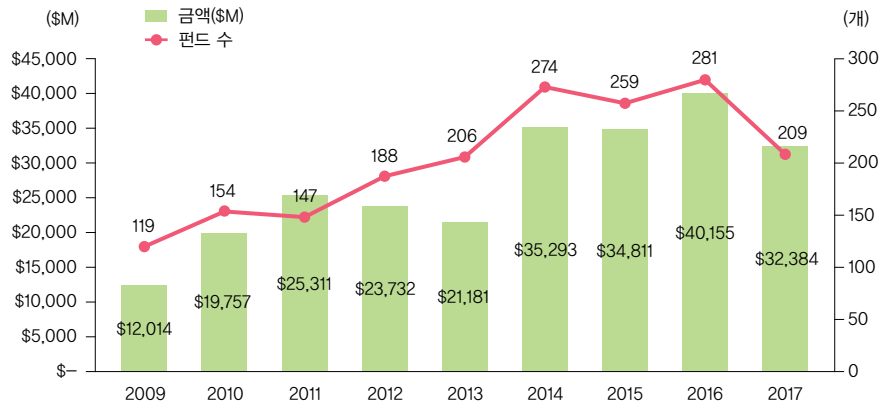
(VC 포커스) 17년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NVCA(미국)에서 발표한 2017년 4분기 통계 요약
- (재원) 209개 32,384백만 달러
- (투자) 8,076건 84,242백만 달러
- (회수) 769건 51,025백만 달러

※ 환율은 2017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068.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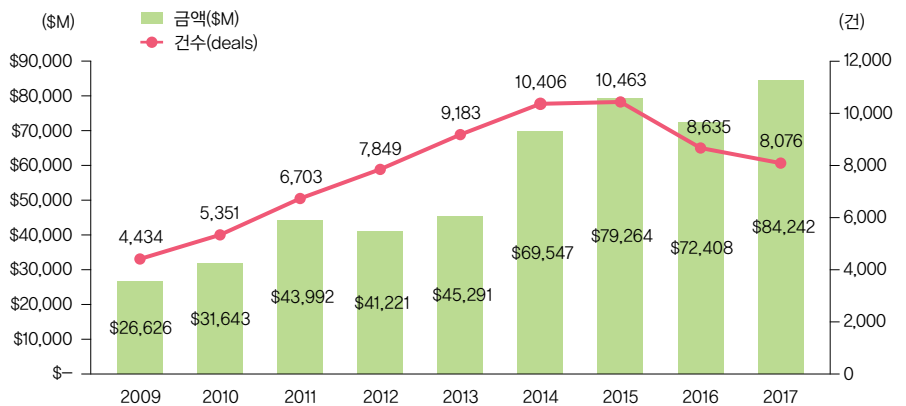
투자재원

- (신규펀드) 2017년에 209개의 펀드가 32,384백만 달러(34조 6,023억 원) 규모로 신규결성



신규투자

- (신규투자) 2017년 신규투자는 8,076건(Deals), 84,242백만 달러(90조 126억 원)를 기록



- 2017년 4분기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Lyft와 전기차 업체인 NextEV가 가장 높은 신규 VC 투자금액을 유치

MARKET TREND

2017년 분기별 신규투자기업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2017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Grail Inc.	914	Lyft Inc.	600	WeWork Companies Inc.	3,100	Lyft Inc.	1,500
2	Verily Life Science LLC	800	ContextMedia Health LLC	500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	350	NextEV Ltd.	1,000
3	Social Finance Inc.	500	Houzz Inc.	400	Auris Surgical Robotics Inc.	280	Urban Compass Inc.	550
4	Instacart Inc.	400	Guardant Health Inc.	360	OpenMail LLC	270	Magic Leap Inc.	502
5	WeWork Companies Inc.	300	Peloton Interactive Inc.	325	(미발표)	—	(미발표)	—

*자료원 :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성장단계별 신규투자/미국) 17년에는 전년 대비 Angel/Seed가 감소하고 Early Stage가 증가

성장단계별 신규투자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ngel/Seed	9.8	11.6	9.4	10.4	9.2	8.0
Early Stage	30.8	32.0	28.8	30.1	31.8	36.4
Later Stage	59.4	56.4	61.8	59.5	59.0	55.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종별 신규투자/미국) 전통적으로 Software 중심의 ICT 서비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는 47.2%, 2017년에는 36.6%의 높은 투자 비중 기록

업종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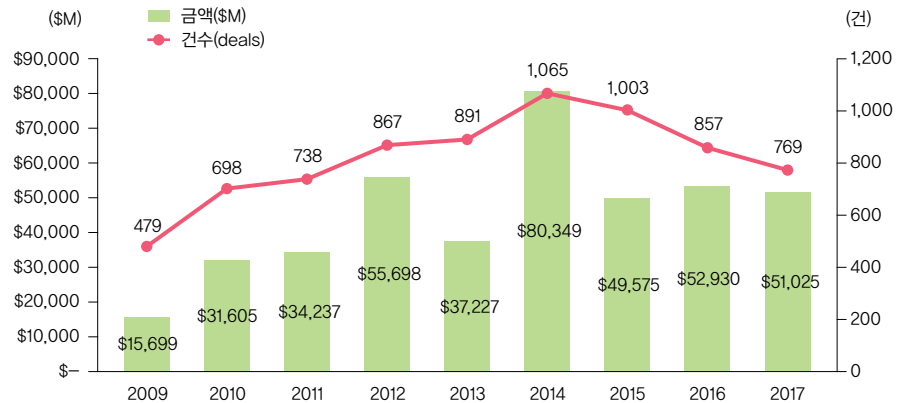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CT제조	6.3	6.1	4.9	3.3	3.6	3.2
ICT서비스	32.7	34.8	42.5	39.4	47.2	36.6
바이오/의료	24.7	24.4	21.3	22.6	21.3	25.4
환경/에너지	7.3	4.1	3.1	1.6	2.5	1.3
문화콘텐츠	3.2	3.8	2.9	2.5	1.7	1.7
소비재/서비스	4.5	3.6	3.1	5.3	3.0	3.3
유통	7.3	8.8	7.2	6.8	4.9	5.3
기 타	14.0	14.4	15.0	18.5	15.8	23.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VC 포커스) 17년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회 수

- (회수유형/미국) 2017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전체 회수금액은 769건 51,025백만 달러 (54조 5,202억 원)를 기록



- 2017년 4분기 미국의 IPO는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기업인 Denali Therapeutics가 25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MongoDB(192백만 달러), Apellis Pharmaceuticals(150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2017년 분기별 IPO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2017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Snap Inc.	3,400	Blue Apron Holdings Inc.	300	Redfin Corp.	139	Denali Therapeutics Inc.	250
2	MuleSoft Inc.	221	Cloudera Inc.	225	Deciphera Pharmaceuticals Inc.	128	MongoDB Inc.	192
3	Alteryx Inc.	126	Okta Inc.	187	Roku Inc.	126	Apellis Pharmaceuticals Inc.	150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2017년 4분기 미국의 M&A는 비디오 커뮤니티 플랫폼 musical.ly가 1,00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NeoTract(750백만 달러), Rimini Street(638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2017년 분기별 M&A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2017년 3/4분기		2017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AppDynamics Inc.	3,700	Chewy Inc.	3,000	Intacct Corp.	850	musical.ly Inc.	1,000
2	Electric Lightwave Holdings Inc.	1,420	Moat Inc.	850	Viptela Inc.	610	NeoTract Inc.	725
3	SquareTrade Inc.	1,400	Ironplanet Inc.	759	Best Doctors Inc.	440	Rimini Street Inc.	638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주요 LP 출자 계획

모태펀드

모태펀드가 2018년 전체 출자사업계획을 비롯해 1차 정시 출자사업 및 과기정통 계정(옛 미래계정)의 출자사업계획도 잇따라 공고했다.

계정별 주요 출자 규모 등은 아래 표 및 한국벤처투자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8년 전체	1차 정시	과기정통 계정
출자규모	총 4,300억 원 이내 (혁신모험 2,800억 원, 중진 1,500억 원)	총 1,880억 원 이내 (문화 1,025억 원, 특허 100억 원, 중진특허협력 100억 원, 보건 180억 원, 관광 170억 원, 환경 130억 원, 스포츠 100억 원, 중진 75억 원)	총 200억 이내
기본조건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선정방법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전담팀, 운용계획 등 평가 선정		
접수 마감 시한	2018년 3월 14일 14시		
조합 결성 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부문별로는 대형 PEF에 4,000억 원, 벤처펀드 3,000억 원, 부실채권(NPL) 펀드 4,000억 원, 코파(Corporate Partnership) 펀드에 1조 원을 각각 출자한다. 이밖에 부동산 부문에는 4,000억 원, 물류에는 2,000억 원의 자금을 집행한다. 각 부문별로 선정될 운용사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펀드가 최대 9곳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은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별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부동산, 물류와 일부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는 5월에 최종 결정된다.

국민연금 2018년 부문별 출자 계획

부문	금액(억원)	최대 선정 운용사 수
라지캡 PEF	8,000	2
벤처펀드	3,000	9
NPL	4,000	2
Secondary 펀드	4,000	2
Corporate Partnership 펀드	10,000	4
섹터펀드	2,000	2
부동산펀드	4,000	2
물류펀드	2,000	1
합계	37,000	24

한국성장 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8000억 원을 새로 출자해 성장사다리펀드·스케일업펀드·구조혁신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성장사다리펀드를 이용해 성장 지원 분야의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스케일업펀드, 매칭수요지원펀드 분야에 각각 1,000억 원, 1,200억 원, 8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을 출자한다. 코스닥에서 소외됐거나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스케일업펀드에는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최대

주요 LP 출자 계획

1,000억 원을, 워크아웃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에는 산업은행 등 5개 시중 은행 및 캠퍼가 최대 4,000억 원을 출자한다.

한편 초기기업 세컨더리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위탁운용사(GP) 4곳이 숏리스트(예비적격운용사)에 올랐다. 제안서를 제출한 총 6곳 중 에스투엘파트너스를 비롯한 현대기술투자, 동훈인베스트먼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현장 실사와 구술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운용사 2곳에 최소 운용 규모 600억 원(각 300억 원)의 50%인 300억 원(운용사별 150억 원씩)을 출자할 계획이다. 운용사도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2018년 한국성장금융 출자 계획

구분	모펀드 출자 규모	하위 펀드 조성액	주요 출자자
성장사다리펀드(기조성)	3,000억 원	9,410억 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청년창업재단
코스닥스케일업펀드	1,000억 원	3,000억 원	거래소 등 자본유관기관
기업구조혁신펀드	3,000억원 ~ 4,000억원	6,000억원 ~ 8,000억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 자료 : 한국성장금융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가 사모펀드(PEF) 부문 1,200억 원, 벤처캐피탈(VC) 부문 200억 원으로 총 1,400억 원 규모의 국내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다. 3월 2일까지 운용사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서류 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후 운용사 실사를 통해 3월 31일에 최종 선정한다. PEF 부문은 총 4개사에 한 운용사 당 300억 이내로 최소 펀드 결성 규모는 1,500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VC 부문은 총 2개사에 한 운용사 당 100억 원 이내로 최소 펀드 결성 규모는 500억 원 이상이다. 지난해 군인공제회는 2017년 PEF 3곳, VC 5곳을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각각 800억 원, 4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농업정책 보험금융업

농금원은 올해 정부 출자금인 400억 원을 모두 포함해 총 655억 원의 농식품펀드를 1차 정시출자 사업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과 수산 분야로 각각 180억 원,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그 외 농식품벤처(125억 원), 지역특성화(100억 원), 6차 산업화(100억 원) 분야의 특수 목적펀드를 32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농금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나 운용사(GP)를 뽑지 못하고 이월됐다. 다른 특수목적 펀드도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수시 출자사업을 전면 수정했다. 세컨더리펀드를 포함한 하반기 수시출자 사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8월 이후에 수시 출자사업을 내놓을 경우 유한책임회사(LLC)도 농식품 펀드의 운용사로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LLC도 운용사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농금원은 오는 3월 30일까지 출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말 신규 운용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2022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5개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 2,000억 원은 4차 산업혁명(4,500억 원), 창업(5,000억 원), 재기(500억 원), 바이오(1,000억 원), 문화콘텐츠(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200억 원을 출자하고, 중앙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올해만 총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6,300개를 마련할 예정이다.